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7년 12월 31일 발행(191호)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aoa.co.kr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아 오 아

미미상사 02.333.1123

03 ISSUE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안경사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04 NEWS IN NEWS

내년 1월 1일부터 전안법이 안경에도 적용되면서 막대한 검사비용 등으로 안경업계의 불만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08 안경계 10대 뉴스

본지는 올해 안경계 10대 뉴스로 근용안경 인터넷 판매 허용, 팩렌즈 가격파괴, 대안협 부회장단의 회장 불신임 등을 꼽았다.

ACUVUE®
BRAND CONTACT LENSES

긴 하루,
편안하고
선명하게

눈물을 닦은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마이아큐브®로 경험해보세요

KR_2017_680



렌즈매니저 2018.01 메이러브 라인업 출/시/예/정

COMFORTABLE FOR A MONTH

MAY LUV

메이러브 클리어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3 CON

메이러브 3 CON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메이러브 데일리
1-month/ 1pack 2pcs



메이러브는 (주)안경매니저에서 새롭게 런칭한 콘택트렌즈 전문샵 렌즈매니저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렌즈매니저
가맹 상담중

(주)안경매니저
가맹 안내·문의

가맹 조건

구분	가맹비	월관리비
안경매니저	500만원	30만원
씨채널안경	500만원	20만원 원부 상권 별도 책정
아 이 피 아	1000만원	30만원

※일부 지역 제외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총괄	이재형	본부장	010-9670-6666
서울 · 경기북부 · 충북	서영태	팀장	010-9364-1739
인천 · 강원 · 경기남부 · 충남	이준영	팀장	010-9424-5438
전남 · 전북	노용선	팀장	010-3092-9239
대전 · 경상도	노장호	팀장	010-9976-5058

NAVER

You Tube

facebook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저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아이



안경매니저



씨채널안경

www.nadokorea.co.kr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안경사 구인구직

모바일 APP 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ASAHI 1.67 / 1.74 양면바구면 UV 퍼펙트 출시!

안경렌즈에 생명을 붙여넣는 일, 시력에 활기를 붙여넣는 일
아사히 누진다초점렌즈가 거러 안경원을 신나게 만듭니다.

아이미광학 T.02.774.4477 F.02.753.9262

근용안경 인터넷 판매 허용... 대변혁 시작

최근 열린 국무회의서 내년 8월부터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발표... 일선 안경사들은 '면허증 반납' 주장하며 강력 반발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선 안경사들은 현재 안경업계에서 떠도는 팩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소문도 조만간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안경사의 업무를 법제화한 1989년 12월에 제정된 의료기사법개정법률(법률 제4180호)이 뿌리째 흔들리는 대변화가 지난 28일 시작되었다. 저도수 보정용 안경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완화돼 당장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쟁제한 규제개혁과 추진방안'을 발표, 이 발표문에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적시해 안경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시력보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의기법 상 불법행위로 근용 도수안경은 반드시 안경원에서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2018년 8월부터 양쪽 렌즈 도수가 같은 일정한 도수 이하(저도수)인 시력보정용 안경은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을 온라인과 시중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해 국내에서도 안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정 저도수를 검수하고 확인하는 기준도 전혀 없을 뿐더러 저도수 범위도 분명히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경사들은 이를 기회로 도수대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극성을 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인터넷 허용 아닌 검토 단계일 뿐'

안경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에 일단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보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내년 8월부터 허용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정부는 내년 초에 관련 연구용역을

1-⑥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의 KC인증 의무 완화(산입부)

- (중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 등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책임성확인 및 부대야무를 부과
- (개선) '안전기준준수' 대상 항목을 신설하여 위험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책임성확인' 대상에서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완화
- * 사전 시험검사 및 KC인증 표시 의무 완화(모발용·제조업자용·제조업자용 등만 표시)
- (효과) 소상공인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 및 그에 따른 소비자가격 하락
- * 예) 열선 소상공인의 경우 타사 12월 생산량 3,000원 중 검사료가 약 1,000원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17.12.16)

1-⑦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 (중점)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
- (개선)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 * 186월 내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범위 최종 결정
- (효과) 돋보기안경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간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의 소비자 편익 증진
- * 외국산·유사상품 사제 등을 고려할 때 5~30% 정도의 가격하락 효과 추정

1-⑧ LPG 연료 사용가능 차량 확대(산업부)

- (중점)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특정계승, 특수목적 등에 한정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의 LPG차량 사용을 제한
- * 일반 소비자는 경형 7인승 이상 승용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중고차5년 경과로 한정
- (개선) LPG 연료 사용 대상 차량에 'RV형 승용차(다목적용)' 추가
- (효과) 차량 연료원에 대한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의 후생 증대, LPG차량 수출경쟁력 제고 및 환경 보호
- * 위발유자에서 LPG자로 전환 시 연비율 약 31% 절감 효과 발생

▲ 지난 28일 발표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보도자료의 일부(좌측). 중간의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이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의 일부.

보건복지부 보도 설명 자료

배 포 일 2017. 12. 29. / (총 1매)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과 장 박 주 문 전 화

담당 자

12월 29일자 한겨레, "인터넷 '시력보정 안경' 산다" 등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그동안 '시력보정용' 안경의 인터넷 판매는 금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양쪽 도수가 같은 저도수 '시력보정용' 안경은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가능

□ 설명내용

- 정부는 국민(안) 보호를 위해 '시력보정용 안경'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해 왔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 * '시력보정용 안경'에는 근시·원시·난시·노안(돋보기안경, 해당) 교정용이 있음
- 앞으로도 대부분의 시력교정용 안경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금지되나, - 눈 건강에 영향이 미미한 일시착용 양안 동일 저도수 '돋보기안경'에 한해서 안전성 연구 등을 거쳐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해명 자료 내며 진화 나서

안경사, 시력의 규제개혁 결사반대

진행하고,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6월에 허용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연구결과와 국민의견에 따라 만약 허용에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아니라면 거기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한 마디로 이번 발표는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이 아닌 '검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발표하며 안경에 온·오프라인의 경제 체제를 도입해 가격의 하락과 다양성 확대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 전문가인 안경사의 손을 떠나 온라인에서 근용안경이든 도수안경을 판매한다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국민의 시력에 끼치는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솔직히 이제 안경사 면허증은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므로 모두 반납하고 옛날처럼 누구나 안경원을 운영하는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 협회 무능이 안경사 업권 훼손 주장

복지부는 정부 발표가 있었던 하루 뒤인 29일에 반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문에서 복지부는 "일시 착용하는 양안 동일한 저도수 돋보기에 한해서 안전성 연구 등을 거쳐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복지부의 해명자료는 '양안이 동일한 저도수 돋보기에 한해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으나 양안의 가입도수가 동일한 경우는 90% 이상이지만, 원용도수가 동일한 경우는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돋보기안경은 원용도수와 가입도수를 합친 것으로써 시력의 도수가 같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돋보기안경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은 시력을 해치는 규제개혁"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복지부가 검토한다고 말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무엇보다 복지부의 이번 해명은 급한 불은 일단 끄고 보자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지난 몇 년간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을 위한 로비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인 상황에서 이번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콘택트 인터넷 판매의 사전 정리 작업 같다"고 의구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인천시안경사회의 최홍갑 회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 증명하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 안경사 전체가 온라인 판매를 저지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한 안경사회 회장은 "안경사의 중요한 업무범위가 훼손되는 동안 협회 중앙회는 무슨 일을 했는지 따지고 싶다"며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안경사 전체가 총력을 다해 인터넷 판매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한 어투로 말했다. /합동 취재반

벌어진 대안협과 복지부... 업무 소통 시급

지난 28일 전격 허용한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가 대한안경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회원 안경사들이 지난 수년간 복지부의 안경원 장비를 삭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한 유권해석이 계속 안경사의 뜻과 정반대로 나오는 것이 협회와 복지부의 불협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일선 안경사들은 안경사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장비 9가지를 삭제하고(2015년 2월) ▶검안을 마친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한해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을 허용하며(2016년 11월) ▶안경원에서 무면허 일반인의 고용이 가능하며(2017년 6월), 이어 지난 28일 '근용안경의 온라인판매 허용'까지 나온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경사들은 협회와 복지부의 간극의 시발점은 국내 법체계로는 결코 제정할 수 없는 안경사단독법을 협회가 무리하게 추진해 복지부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만든 이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인사들은 전임 집행부가 국회를 다니며 단독법을 추진할 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주무과장이 집행부 수뇌부에게 '협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잘 지키라'고 언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 '단독법만 제정되면 장비 삭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며 단독법을 추진해 9가지 장비가 삭제되었다고 알고 있다. 많은 안경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는 안경사와 결코 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로서 대안협은 무엇보다 복지부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독독

■ "중앙회의 모 부회장이 현수막 크게 걸고 '누진렌즈 50%'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도 아니고 찌웃." (서울시 강동구의 한 안경원 원장)

■ "11월부터 딱 꺾인 경기가 12월엔 완전 밑바닥이네요. 예전엔 연말연시에 조금은 팔았는데, 이제 이마저도 옛 추억인가 봅니다."

(경기도 부천시 한 안경사)

안경테, 내년부터 ‘전안법’ 적용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 무산으로 새해부터 제도 시행... 700만 소상공인 극력 반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개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당장 2018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안경테를 제외한 모든 안경용품에 전안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와 관련이 없는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까지 KC인증을 받는 법이 시행됨으로써 안경업계를 포함한 700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KC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안경업계에서 전안법에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모델 별로 의무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다. 한 모델의 안경테라도 컬러, 디자인, 로트번호 별로 KC인증을 받음으로써 니켈 용출량 시험의 경우 한 건당 검사비용이 평균 3만 8

천원 가량 소요된다. 예를 들어 12가지 모델에 4가지 컬러의 선글라스를 검사하는 비용은 2백만원에 가까운 자금이 추가로 소요된다.

대구의 안경테 생산·유통업체의 관계자는 “현재 대구 3공단에서 KC인증을 마친 업체는 극소수로써 전안법이 실시될 경우 안경업계는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안법의 올바른 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인증 비용이 제품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소비자도 원치 않는 일인 만큼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경테의 KC인증기관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으로 선글라스는 광투과율과 니켈 용출량, 메탈 안경테는 니켈 용출량으로 전안법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대 협회장 선거에 2인 출마 선언



▲ 제20대 협회장선거 김종석 후보자.



▲ 제20대 협회장선거 황인형 후보자.

내년 2월 (사)대한안경사협회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지는 제20대 협회장 선거의 출마자가 12월말 현재 2명으로 압축됐다. 그 주인공은 중앙회의 황인형 수석부회장과 서울시안경사회의 김종석 회장으로 최근 이들은 각각 모처에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 안경사들은 앞으로 두 달여에 걸친 선거전이 상대를 비방하는 흑색 네거티브를 배제한 깨끗한 공명선거가 됨으로써 협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 새해부터 고용보험료 3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록자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지원

내년 새해 첫날부터 1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홍준하 장관이 취임 후 제시한 3가지 약속 중 하나인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의 첫 번째 실행으로 이 같은 정부지원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인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가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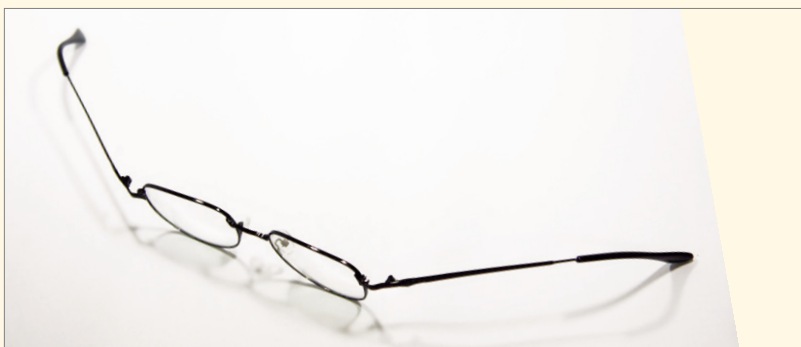
▲ 정부가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소규모 안경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은 시중의 한 안경원의 모습(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성상 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토뉴스

‘옛가락’ 처럼 늘어나는 5천 원짜리 안경테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은 역시 틀리지 않는 말인가.

수개월 전 국내 최대의 저가 할인용품점 D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5천 원짜리 도수 안경테의 품질이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손으로 잡아당기는 대로 옛가락처럼 쭉쭉 늘어나는 복원력 ‘제로’ 품질에 손톱만 스쳐도 코팅이 벗겨지는 조악품으로 밝혀진 것. 더구나 장난감 수준의 이 안경테는 손만 대면 상하좌우로 안경렌즈의 초점이 뒤틀어져 시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상태여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일선의 안경사들은 “이런 제품은 착용자의 시 생활은 물론 시력 장애까지 일으키는 조악품”이라며 “안경과 전혀 연관 없는 업체가 공산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질 불량테를 만들어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의 안보건을 망치고 있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안경사는 “아무리 안경테가 공산품이라도 이처럼 안전장치 하나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계기로 관계당국과 안경사들이 공동으로 올바른 안경테 캠페인을 적극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 인증 받은 고순도 XDI 개발

한화케미칼, 기존 렌즈보다 얇고 변색 없는 고급 렌즈 생산 가능... 2020년에 제품 출시 예정

한화케미칼이 광학 특성이 우수한 ‘고순도 XDI(xyllylene diisocyanate) 제조기술’을 개발해 지난 21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XDI는 일반 안경렌즈에 쓰이는 일반적인 모노머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누렇게 변색되는 황변현상이 없고, 렌즈를 얇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인 굴절률이 높아 고급 렌즈나 디스플레이 소재, 고급 코팅제 등 광학적 특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의 핵심은 투명성과 고굴절성으로 XDI를 원료로 사용하면 기존 렌즈보다 약 30% 더 얇고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한화케미칼의 관계자는 “자사는 2020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국내 최초 XDI의 국산화 및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독점 공급업체의 고가 소량판매 정책으로 수급이 어려웠던 프리미엄 안경렌즈 시장에 국내 기업들의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XDI는 일본의 미쓰이사가 독점 생산·공급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천 톤으로 한화케미칼을 통해 원료가 공급되면 전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V ZERO

Blue Light is everywhere



(주) 하이비전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3310호

Tel. 1899-7391 Fax.031.278-1892 Mail.hivisionkorea@hivision.co.kr Web.www.hivision.co.kr



●경기대명 - 경기남부 031-391.5942 ●신성유타-대전.충북남 042.535.1514 ●하이비전 - 부산.울산.경남 1600.0970/051.257.7001

社説

평 먹고 알 먹는 협동조합

최근 영세한 안경원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에 술한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안경사 협회장 선거가 2달여 앞둔 시점에 조합원을 모집한다며 전국의 지부를 찾아다니다니보니 억측이 더 커지고 있다. 조합에 가입한 면면들이 협회의 전·현직 임원이 많고보니 의심이 증폭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심과 억측은 협회가 며칠 전 갑자기 협회와 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협회의 전임 회장이 현재 협회장 당선에 기여했고, 또 내년에 선출하는 차기 협회장에 모 인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협회와 조합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의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안경렌즈 착색 견본판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업무협약 당일에 업체 관계자를 협회로 불러서 착색판 제작의 협조를 요구했으니 오해를 받고 있다. 4만여 안경사를 자랑하는 협회라면 최소한 상임이사회는 거쳐서 협약을 맺는 것이 정상이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협회가 조합에 간판을 빌려주고 영업을 거드는 것은 속보이는 처신이다.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참가 업체들은 협회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가 협회와 조합이 짜고 갑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솔직히 지금까지 알려진 협동조합의 사업은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전체 회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지극히 제한된 회원만 참여하는, 그것도 현재까지는 전·현직 임원들 다수가 참여한 이익 조합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회원들은 협회가 갑자기 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가 차기 협회장에 출마한 모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지금 업계엔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협동조합이 이미 전국 안경원에 비치된 렌즈 견본판을 표준화한다는 구실로 협회를 앞세워 업체에게 협찬금을 요구하며 •역대 협회장들이 퇴임 후 깨끗이 물러나는 것과 달리 누구는 협회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회원 편가르기와 사익을 추구하고 •단독법 실패에 9가지 안경원 장비를 빼앗긴 장본인들이 사과논커녕 조합을 결성해 업계 유통체계를 뒤흔들고 •6년간의 최고 권한도 부족했는지 3년에 또 3년을 더해 6년간 협회 주변을 맴돌고 상왕처럼 행사하며 •결국 협동조합은 추후에 협회에 가장 걸려있는 대응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요즘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향해 평 먹고 알 먹는 협동조합, 협회의 위세를 이용해 조합이 손쉽게 조합원을 가입시켜 재미보는 바둑으로 말하면 꽃놀이패 조합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협회의 실세 회장은 왕조시대처럼 한 명만 존재해야 바람직하고, 선거권은 깨끗해야 낙선자가 승복하고 회원들이 화합한다. 자신의 세력을 무기삼아 협회를 개인 소유물처럼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협회의 설립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협회장 선거를 앞둔 지금은 임원들이 오해받을 일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신이다. /본지 하선

世評

송구영신(送舊迎新)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온다. 보내는 아쉬움과 맞는 벅참과 새로움의 기대를 저마다 가슴 속 깊이 새길 것이다.

‘시간은 세상의 혼(魂)이다’라고 말한 철인이 있다. 시간의 혼을 찾아 삶의 의미를 새기고 이 세상의 기쁨과 보람을 보태고 그런 가운데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뀐다. 이런 값진 지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삶에는 존각이 광채로 빛나고 새로운 해의 시작은 장엄하기까지 하다. 천시(天時)가 우리에게 ‘새해’라는 진솔(眞率)의 웃을 입혀 줄 때 우리는 하늘을 날 것 같고 그 순수함은 오래 간직하고 싶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서 두 개의 시간이 있다.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물리적 시간으로써의 크로노스(chronos)와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심리적 시간으로써의 템푸스(tempus)가 바로 그것이다. 크로노스적 시간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특정 사건들의 연속을 경험함으로써 인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템푸스적 시간이다.

인간에게 시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의 상호계기를 이루는 시간의식 순서에 의거해서 나타난다. 시간은 곧 시련이다. 현재는 기억으로 현재의 현재는 목적으로,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으로 존재한다. 전통사회의 사회적 연대가 해체되면서 이해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조직 원리가 등장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혼잡, 불평등, 정체성의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역사의 임무는 과거에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 란케(Ranke)를 비판하면서 E.H.카가 강조한 것은 역사인식은 역

사가가 현재적 인식 관점에 따라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시작도 하며, 그 대화의 결과로 성립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다. 그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했다. 그는 과거에 대한 사실(fact about the past) 그 자체가 역사의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들이란 역사가가 현재적 관점과 문제의식에 의거해서 과거에 대한 사실 가운데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만을 선택하여 일정한 질서로 배열함으로써 성립하는 ‘역사’라는 담론체계의 결과물이다.

사람 개개인의 입장에서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대자연에는 순환이 있을 뿐 시작도 끝도 없다. 단지 사람의 눈에 시작과 끝을 정해 놓은 것뿐이다. 사람들이 시작과 끝도 없이 흐르고 있는 세월을 토막내고 짝 맞춰 연월시를 정하고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나는 것보다 참신한 명제(命題)를 크게 내걸어 실천하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 즉 도(道)란 글자 그대로 길이며 인간을 향한 하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하여 사회의 규범적 원리나 인간에게 내재된 뜻으로 보지 않고 초월적 존재의 속성으로 본다. 변화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프로페셔널의 조건은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밖에 없을 것이다.

(우암 문운서(본지 편집위원))

DAUM에서 옵틱위클리 뉴스검색

DAUM에서 옵틱위클리 최신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옵틱위클리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www.opticweekly.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보나 본지의 구독, 광고에 관한 문의는 02-363-3885번으로 연락바랍니다.

2018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신입생 모집(2년제)

■ 원서접수

구 분	정 시 모 집
전 형 별	일반, 특별, 정원외
원 서 접 수	2017. 12. 30(토)~2018. 01.12(금)
면 접	·
합 격 자 발 표	2018. 1. 24(수)
합 격 자 등 록	2018. 02. 07(수)~02. 09(금)

■ 원서접수 방법 전화접수

- 전화접수 : TEL 063-530-9250~3, 063-530-9256 / 9237
- 우편접수: (56204)전북 정읍시 정읍사로 509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 '원서제출' 명시

■ 전형방법

-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 특별전형: 안경사 직계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 산업체에 6개월 근무경력자
- 정원외전형: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 농어촌학생지원자

■ 학과 특성

- 22년 전통의 안경광학과
- 매년 높은 취업률
- 매년 높은 국가시험합격률
- 안경사국가시험 전국수석 배출(2005, 2013년)

■ 장학혜택 및 기타

- 가족 장학금 외 다양한 장학금 혜택
- 현대식 기숙사 시설 및 타지역 학생 전원 기숙사 입사 가능
- 입학우수장학금 재학 중 등록금 전액 (고교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당해연도 고교졸업자)

■ 입학상담 : 안경광학과 063-530-9250~3, 063-530-9256 / 9237

Mobile 010-3305-1763 / 010-8642-9460 / 010-3675-9251 / 010-2987-9075 / 010-2025-1314



안경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배출
(2005년 · 2013년)

TOS

2018 토스 수주회 및 사업설명회

상상... 그 이상의 득템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가격과, 다양함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 귀 안경원 경영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기회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많은 이득을 가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세 공과금
본인부담

1등 판매가 1,100만원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화된
개인 맞춤형 측정장비

EYE M™ II



2등 판매가 350만원

니덱 최신형 렌즈미터

NIDEK LM-7




3등 판매가 300만원
(주)국제 빛과학연구소
엔젤루체 컬러처방 시스템



4등 50만원 상당
55인치 UHD TV

- 특별경품 외 시간별 행운권 추첨
- 기라로시 최고급 우산 증정

- ◎ 수원행사 : 2018년 01월 09일 10:00 ~17:00 수원 삼성생명빌딩 연수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지하 1층)
- ◎ 서울행사 : 2018년 01월 10일 10:00 ~17:00 서울시안경사회 (영등포구 문래로 164 영등포 SK 리더스뷰B동 402호)
- ◎ 인천행사 : 2018년 01월 11일 10:00 ~17:00 사회복지법인 협성원 (인천시 부평구 화랑로 65 번지)

- 문의전화 : 031 226 7055 / 010 5413 1010 / 010 6626 8275 • 전 행사장 주차가능
- 전화로 참가 신청하시면 초대장과 팜플렛을 보내드리며 각 행사별 선착순 200 명으로 한정하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듀! 2017년 정유년... 안경업계 10대 뉴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의 안경업계. 갖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쉼 없이 일어난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7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00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올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요즘 한창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이 그릇된 생각인 파사(破邪)에만 머

물지 말고 현정(顯正)으로 사고방식을 바르게 가지길 바라는 의미이다.

2017년을 보내는 국내 안경업계에 ‘파사현정’은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있지만, 2018년엔 우리 업계에도 ‘파사현정’의 힘찬 기운이 넘쳐나길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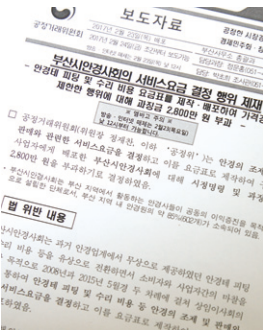
다음은 본지가 선정한 2017년도 한국 안경업계의 10대 뉴스이다. <편집자 주>

- 보건복지부, ‘무면허자의 안경원 근무 가능’ 해석



지난 6월 한 안경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경원에서 무면허 일반인이 근무할 수 있는가’란 민원성 질의를 올렸다. 이에 복지부는 ‘안경원에서 무도수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일반인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사실상 무면허자의 안경원 고용을 인정해 충격을 주었다.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무도수안경 등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아 일반인이 판매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으로써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 공정위, 부산시안경사회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안경의 조제 및 소모품의 요금표를 관내 안경원에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명령서에서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적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부산시안경사회를 주축으로 중앙회는 지난 5월 대책위원회를 열었지만, 법률 검토 이후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기로 결정했다.

- 중앙회 부회장단, 김영필 회장 불신임 서명



대한협 중앙회의 8명의 부회장이 김영필 회장을 불신임하는 결의서를 작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7월 부회장 8인은 ‘회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되 그 직무와 권한 일체를 부회장단에 이관하라’는 결의서를 작성해 이를 김 회장에게 전달한 것. 대한협 창립 이래 초유의 사태를 보도한 본지에 중앙회는 1개월여에 걸쳐 본지를 ‘외곽, 날조기사, 음해세력’이라고 매도했으나 결국 8월 정기이사회에서 불신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회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안경렌즈 슬러지의 환경 유해성 갑론을박



관계자들이 참여해 구미시의 한 안경원에서 슬러지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서 해당 검사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안경원 30여 곳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슬러지에 대한 관리 기준을 확정해 실시 적용할 방침이다.

- 기준 규격 탈락하는 중굴절렌즈 판매 중단



지난 8월말부터 드롭볼 강도 테스트에서 탈락한 중굴절렌즈는 생산이 중단됐다.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굴절렌즈의 기준규격의 강화는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의료기기의 ‘고시 제 2016-90호’에 따른 것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8월 26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업계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통과하지 못한 중굴절렌즈라도 2017년 8월 26일 이전에 생산되거나 기준일 이전에 납품된 렌즈는 기준규격과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은 정부가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국가 면허자인 안경사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문재인 케어’ 서 라식라섹 수술 제외



지난 28일 정부가 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내년 8월부터 양쪽 렌즈 도수가 같은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직후 보건복지부는 “당장 허용한다는 것이 아닌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허용이 아닌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많은 안경사들은

그동안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전액 보장·지원해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가운데,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은 신체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 계속 남고, 따라서 모든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항목은 예비급여, 즉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 골자로서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 팩렌즈 가격붕괴로 안경원 매출 곤두박질



전국 곳곳에서 가맹점을 오픈하며 근처 안경원을 가격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한 안경체인이 특히 팩렌즈인 디스포저블 렌즈를 원가 판매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안경체인의 가격파괴에 자극받은 제2 제3의 안경체인이 팩렌즈를 원가 판매해 많은 안경사들이 ‘팩렌즈는 아예 안파는 게 상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혼란을 겪었다. 더구나 문제는 팩렌즈와 관련된 안경원 간의 과대광고가 남발됨으로써 안경테와 안경렌즈 등 안경원의 다른 솔루션에 대한 가격할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전국 안경원의 피해를 부채질했다. 안경사들의 가격할인 자체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3번째 임시총회 끝에 대한협 정관 개정



대한협이 지난 9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했다. ‘1996년에 등기를 변경한 이후 한 차례도 등기변경이 없어 이를 시대와 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다’는 목적으로 3번째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관 제3조(목적)는 ‘시력검사’ 자구 추가, 제4조(조직)의 ④항을 신설해 ‘각 시·도지부의 명칭은 시·도 안경사회, 분회의 명칭은 시·군·구 안경사회라 한다’로 적고, 제5조(사무국)에 협회의 현주소를 명확히 표기해 협회 재산을 보다 분명히 기재한 것 등을 개정했다.

- 한국안경렌즈제조협회 14년만에 해산 결정



2003년 10월 창립한 한국안경렌즈제조협회가 14년만인 올해 1월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지난 1월 舊제조협회의 5개 회원사 관계자들은 협회가 더 이상 존립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협회의 자진 해산을 의결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 제조업체들의 협회 참여 부족과 모 업체의 외국사의 인수로 더 이상 협회가 업계 공동이익의 추구가 어려워진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그동안 한국 안경렌즈산업의 기술교류와 저변 확대에 일익을 담당해 온 제조협회가 해체됨에 따라 시시때때로 국내 안경렌즈 시장의 혼돈과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경점에서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보청기**부터 **청각진단장비**까지 한번에!

이제 헤매지 말고, 쉽게가자~

보청기부터 장비까지 청각관련 사업 총괄 기업!

쉽게 창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보청기, 장비 교육 무상 지원으로 손쉽게 빠르게 사용 가능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청각진단

난청인구증가

복합/고급
보청기

저비용 창업가능



보청기, 장비 대리점 문의
02-2022-3900


오티콘보청기
소리로 전하는 감동

bernafon[®]
Your hearing · Our passion


Interacoustics


amplivox


MAICO


Micromedical
TECHNOLOGIES

기능성 확 높인 'C3 블루 블록렌즈' 시장에서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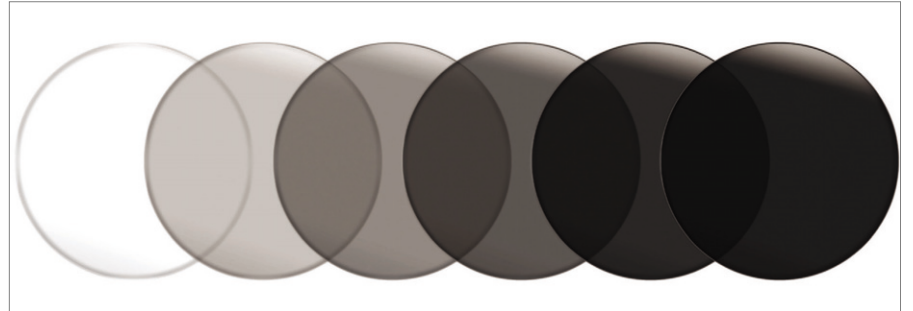
한미스위스광학, UV 400 완벽 차단과 청광 차단 코팅으로 차별성 뚜렷... 디지털 기기 증가로 전국 안경원서 인기리 판매중



한미스위스광학(대표 진재홍)에서 지난 9월초 선보인 C3 BLUE BLOCK LENS 시리즈(1.56/ 1.56 비구면/ 1.60/ 1.60 비구면/ 1.67 비구면/ 1.74 비구면)가 근래 안경 업계의 킬러타이틀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청광차단 렌즈가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솔루션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스위스의 C3 블루 블록렌즈 시리즈는 UV 400을 100% 차단하고, 제품별로 청광 차단 코팅 등을 통해 차별화를 완성시킴



로써 기존 UV 380 제품과는 확연하게 다른 기능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시장은 아직까지 UV 400 렌즈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역별로도 렌즈의 기본 컬러나 기능 등 서로 다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그러나 자사의 블록렌즈는 기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자외선 차단율과 청광 차단 코팅 기능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는 "국내시장은 앞으로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상황으로 기능 부분을 더욱 강조할 것이 확실시 되어 자사는 UV 400 관련 솔루션의 기능을 높이는데 더욱 매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42)272-8972

'눈물 닮은 오아시스' 새 광고 노출!

J&J,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대규모 광고... 스타벅스 이벤트 2월까지 연장 실시

물을 닮은 오아시스, 긴 하루 내내 편안하고 선명하게'라는 주제로 신입 기자가 오아시스 원데이를 착용하고 성숙한 기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은 90초 광고와 눈물을 닮아 하루 내내 편안하고 선명한 오아시스 원데이의 장점을 알리는 15초 광고 등 2가지 버전

(주)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대표 김희경, J&J)의 ACUVUE oasys 1-Day의 새로운 광고가 공중파, 케이블TV,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공개됐다. 현재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윤혜 씨를 새로 오아시스 원데이의 모델로 발탁해 각종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지난 18일부터 전파를 타고 있는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의 새로운 광고는 '눈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J&J는 오아시스 원데이 구매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고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장 진행하고, 마이아큐브로 오아시스 원데이 30개입과 90개입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주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1인당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80-023-0202

자이스, 중년 전용 '특별렌즈' 런칭

자이스 에너지자이즘 디지털 렌즈 내년 1월 런칭... 에너지자이즘 라인업 완료

칼자이스비전코리아(대표 최익준)가 다가오는 신년부터 'ZEISS EnergizeMe Digital Spectacle Lenses'를 선보인다.

지난 4월 첫 선을 보인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위한 안경렌즈인 자이스 에너지자이즘에 이어 이번 1월 1일부터 선보이는 자이스 에너지자이즘 디지털 렌즈는 30~40대의 디지털 시생활을 고려한 렌즈로써 단초점렌즈와 누진렌즈 버전만 출시됐던 기존 자이스 에너지자이즘의 라인업에 디지털 버전을 추가시켜 소비자의 연령대 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첨단 렌즈이다.

자이스 에너지자이즘 디지털 렌즈의 특징은 ▶에너지자이즘 디자인이 적용된 점으로 시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안경 착용을 꺼려하던 콘택트렌즈와 일반 안경 착용자들에게 안경 착용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고, 내면 아토틱 디자인으로 수

차를 줄여 편안함을 제공하며 ▶디지털 기기 관련 시청거리를 고려해 자이스 디지털 인사이드 테크놀로지를 통해 30~40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인 0.65D의 가입도를 근용부에 추가, 사용자가 모든 거리에서 사물을 선명하고 편안하게 주시하는 것은 물론 목과 머리에 자연스러운 자세 유지가 가능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장시간 블루라이트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이로인 블루라이트는 투과하되 유해한 블루라이트는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자이스 듀라비전 블루프로텍 코팅을 적용한 것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자이즘 디지털 렌즈는 눈부심 완화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감을 유지시켜 집중력과 일의 능력을 크게 높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02)2252-1001

오늘도 수고한 내 눈을 위해 편안함을 즐기는 시간

자이스 에너자이즈미 안경 렌즈
ZEISS EnergizeMe Spectacle Lenses

30~40대 전용
에너자이즈미
디지털 렌즈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빈번한 현대인을 위한 에너자이즈미 시리즈
콘택트렌즈 착용자에게 적극 추천

에너자이즈미 단초점 독서 거리가 짧고 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고객

에너자이즈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오후에 눈이 쉽게 피로한 고객

에너자이즈미 누진 누진 렌즈를 처음 착용하는 고객

www.zeiss.co.kr/vision

[f @zeissvisionkorea](https://www.facebook.com/zeissvisionkorea)

ZEISS

‘2년간의 집중화 교육… 인기 학과 만들었다!’

전국수석 두 명 배출과 매년 높은 국시 합격률 자랑… 최 학과장 “해마다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하락하는 것은 인기 학과라는 또 하나의 증거”



전북과학대학교

▲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최선미 학과장

2017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개설된 안경광학과는 42개교에 달한다. 이는 2010년도의 48개교에 비하면 12.5%가 감소한 수치이다. 출생률의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안광과 역시 감소하면서 안경업계 전체에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축현상 속에서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는 매년 입학정원 80명을 유지하는 소위 ‘잘 나가는 학과’로 타 대학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전국에 4개교에 불과한 2년제 학제로서 선망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전북과학대 안광과인 것이다.

올해 학과장으로 부임해 전북과학대 안광과를 이끌고 있는 최선미 학과장으로부터 인기 비결을 들어 보았다.

– 안경광학과 중에서 인기 있는 대학을 찾았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무엇보다 2005년과 2013년에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하는 기업을 토론했습니다. 4년제 학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해 정진한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수님들이 국가시험의 출제 방향에 맞추어 정례 토론회를 진행하고, 학과의 커리큘럼을 계속 수정·보완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 커리큘럼 이외에 세부적인 학습이 꼼꼼하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봅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학과는 멘토-멘티 제도를 이용한 스터디 그룹을 운

매년 입학 정원 80명 100% 충원, 지난해 국시 89.6% 합격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멘토 운영으로 명문 학과 도약

영해 학생들 스스로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또 2년제임에도 명문 안광과란 명성을 얻은 배경은 차별화된 커리큘럼 때문일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심화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성적을 기준으로 실습조를 편성해 굴절검사와 관련한 수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시험이나 현장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학과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과가 2년 학제임에도 안경사 국시에서 전국 수석을 두 명이나 배출하고, 지난해 안경사국가시험의 합격률은 89.6%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1995년에 개설된 이래 1,700여 졸업생이 모두 훌륭한 안경사로서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졸업생 중에서 전임교수 2명(본교 1명, 타대학 1명)을 배출하고, 또한 국제콘택트렌즈교육자협의회(IACLE)가 주관하는 콘택트렌즈 처방, 관리, 취급에 관한 STE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년간 전문 안경사 1700여명 배출

–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신입생 80명 모집이 쉽지 않을 텐데요.

“대학 학과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www.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학과는 2015년부터 충원률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률이 2015년에는 14.8%, 2016년은 11.3%, 2017년은 6.8%에 불과합니다. 여타 대학들이 신입생 응시율이 계속 감소하고 탈락률이 늘어나는 것과 다르게 우리 학과는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과가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반증입니다.”

– 올해 신입생 지원자의 특징은 어떤가요.

“우리 학과가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상회하는 때문인지 30대 이상의 응시 비율이 높고, 심지어 정년퇴직한 만학도의 입학도 꽤 많습니다. 전문인으로서 안경사의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 전북과학대 안광과만의 미래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겠지만 첫째 우리 학과는 수업 연한이 짧은 2년제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대표적 학과로서 이는 교수와 학생이 합심 노력한 덕분입니다. 또 우리 안광과는 따뜻한 마음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검안과 조제에 대한 전문인을 배출해 현장에서 전문 안경사로 성장시키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로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졸업생이 우리 학과의 든든한 자양분이고 재산입니다.”

–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지난 20년간 국내 각지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학과가 인기 있는 학과로 자리 잡은 것은 모두 졸업생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또 현재 재학생들은 앞으로도 전북과학대 안광과가 안경계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소중한 인재임을 항상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광과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모든 졸업생과 희망으로 가득찬 재학생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미 학과장은 졸업생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가 많은지 ‘조금 더 말해도 괜찮지’를 묻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학교 이전에 따라 따뜻한 마음과 창의적 역량을 지닌 졸업생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능력 있는 안경사가 되기 위해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바라며, 언제 어느 때라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실력 있는 안경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기자는 최선미 학과장과 인터뷰를 통해 전북과학대 안광과가 실력과 인성으로 똘똘 뭉친 전문가를 육성 배출하는 명품 학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태용 기자



Neuroscience

렌즈는 지금,
뇌과학의 영역으로...

E.N. Spiral Model

인간공학과 뇌과학이 만나
혁신적인 렌즈 설계로,
착용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드립니다.



B E L U A
RESONAS[®]

TOKAI LENS CO.,LTD.

상상 그 이상의 검안기... '니텍 OPD Scan III'

각막곡률과 굴절력 분포도, 백내장 유무, 주야간 시력 차이를 순간적으로 측정... 고급렌즈 판매 돕는 최고 검안기로 유명 안경원서 입소문

안과에서 수술 전에 피검안자의 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 OPD ScanIII를 안경원 검안기에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탄생한 '니텍 OPD ScanIII'. 일반 검안기로는 파악할 수 없는 피검자의 각종 눈의 정보를 고객에게도 정밀하게 보여주는 OPD ScanIII는 각막곡률과 굴절력 분포도, 백내장 유무, 주야간 시력 차이 등 눈의 각종 증상을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보여주는 최첨단 검안기이다. 특히 OPD ScanIII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외부 모니터와 간편하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검안기로 확장성

이 높고, 타각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니텍 자동포롭터 RT-5100과 시스템차트 SC-1600/SSC-370 등에 자료를 전송해 자각적 검사와 연동해 보다 정확한 검사를 돕는다. 또한 OPD ScanIII는 검사자인 안경사가 초보인 경우에도 정밀 분석 데이터와 이미지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검안을 돕는 최고의 검안기이다. 이에 따라 OPD ScanIII는 피검사자인 고객들이 여타 안경원과 차별성을 느끼어 고객 이탈방지는 물론 충성고객을 만들고, 특히 안경원에서 고급렌즈의 판매를 돕는 효과 검안기로 인기가 높다. 문의 02)779-7400

● 니텍 자동굴절력 분석기 OPD ScanIII

각막형상과 굴절력 에러, 동공계측을 통해 종합적인 고위수차를 분석하여 시력 저하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최상의 검안기 니텍 OPD Scan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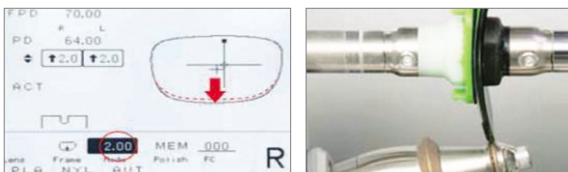
▲ 안과에서 사용하는 검안기를 안경원에서 활용되도록 특화된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OPD ScanIII는 각막곡률과 굴절력 분포도, 주야간의 시력 차이까지 진단하고,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증상을 순간적으로 분석 표시하는 새로운 기능의 검안기다.

● 니텍 무패턴 자동옥습기 LE-1200

8커브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트레이서와 미니 산각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자동옥습기.



▲ 화면을 보면서 아래방향 또는 좌우의 사이즈를 부분적으로 조정 가능. 무테 또는 반무테의 균용부를 조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홈파기 휠과 면치기 휠이 장착되어 있어 자동으로 최상의 홈파기 및 면치기 가공을 할 수 있고 홈파기의 위치, 깊이, 폭, 커브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니텍 자동렌즈미터 LM-7 / LM-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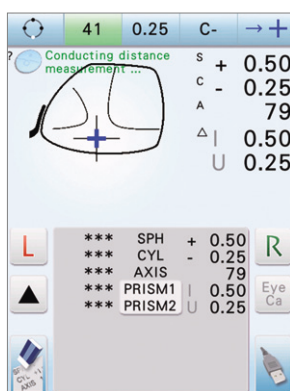
5.7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으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니텍의 최신 자동렌즈미터 LM-7. 108포인트의 하트만 센서와 고품질 광학렌즈를 사용하여 최고의 측정 정확도를 제공하고 컬러 터치LCD를 적용하여 버튼 없는 깔끔한 디자인은 물론 사용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 PD 측정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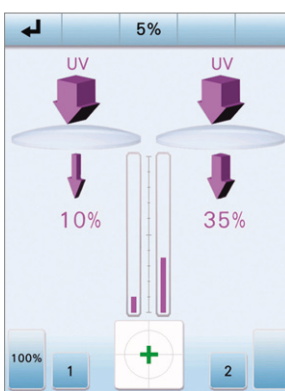
▲ 렌즈 자동판별



▲ 눈진 측정모드



▲ 프리즘 모드



▲ UV 측정모드

CARVEN

eyewear

- BOOSTER SERIES -

신소재로 제작한 3.9g의 초경량 고탄성 안경



BOOSTER 50S _ BLACK



특허 출원 10-2017-0171610 및 디자인 출원 30-2017-0059777 / 30-2017-0059778

LENS

누진 부문 '2017 스타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호야, 소비자 설문조사서 누진렌즈 1등 브랜드로 '호야릭스' 선정 영예



한국호야렌즈(주)의 HOYALUX가 지난 12월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17 스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누진다초점렌즈 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호야릭스가 지난 9월 전국 1만 4천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누진다초점렌즈 부문에서 높은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1위를 차지한 것.

회사의 한 관계자는 "호야만의 까다로운 품질 정책과 독보적인 누진 기술

력으로 스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낳았다"며 "자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이 감동하는 점단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스타브랜드 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총 38개의 기업과 42개 기관의 브랜드가 선정됐다.

문의 02)585-1911

LENS

고도근시용 '루티나+ 1.76AS' 런칭!

토카이, 1.67AS에 이어 고도근시와 고도원시 소비자 위한 솔루션 완벽 공급



토카이렌즈(주)(대표 장익희)에서 지난 1일부터 LUTINA+ 1.60AS, 1.67AS에 이어 루티나+ 1.76AS(단면비구면), 1.76Bi-AS(양면비구면)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에 따라 토카이는 루티나+ 1.60AS, 1.67AS 비구면에 이어 세계 최고 굴절률인 1.76AS, 1.76Bi-AS까지 공급함으로써 고도근시나 고도원시 고객에게 완벽하게 아이헬스케어렌즈를 제공하게 되었다.

황반의 주요 구성 성분인 루테인을 보호하는 기능성렌즈인 루티나+는 지금까지 안경렌즈에서는 고려되지 않

던 자외선은 물론 근적외선(Infrared-Rays, 파장 760~1400nm)을 50%까지 차단하고, 또한 토카이의 독자 개발물질인 ESC 코팅으로 피부 건강과 미백을 지켜주어 피부 주름이나 처짐 등 눈 주위의 노화 방지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토카이의 한 관계자는 "자사는 앞으로도 아이헬스케어렌즈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37-8666

LENS

안경렌즈 유통 바꾼다- '지니어스'

가래 안경원에 최저가 제품 공급·간편 주문 적용·소비자 직접 홍보 제공



신생 안경렌즈 유통업체인 지니어스(대표 김진희)가 내년 1월부터 안경원에 공급하는 솔루션을 확대한다. 효율적인 통합 물류를 기반으로 전산 플랫폼(JINYUS ORDER)을 구축한 지니어스에서 MioFriends 안경렌즈를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안경렌즈 유통에서 최초로 초도 물량 할증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 또한 지니어스는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사용하기에 간편한 주문 체계를 홍보하기 위해 선착순 안경원 200곳에 JINYUS Money 1만 원을 제공해 사용 경험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지니어스는 마이오프렌즈 안경렌즈 이외에 미오프렌즈 안경렌즈 초도 입고 시 한 달간 안경원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홍보를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니어스의 김진희 대표는 "SNS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고객

문의 070-8809-5093

CONTACT

지오메디칼, 글로벌 선도기업에 선정

KICOX서 개최한 선도기업에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올라



컬러 콘택트렌즈 제조 전문기업 (주) 지오메디칼(대표 박화성)이 '2017년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난달 29일 대구시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열린 '2017년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식에서 지오메디칼이 다른 32개사와 함께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매출액, R&D 투자, 수출 및 고용현황, 기술력,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선정의 영예를 안은 지오메디칼은 특히 컬러 콘택트렌즈의 주소재인 퍼스퍼릴콜린(PC; Phosphorylcholine)으로 많은 소비자

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기업이다.

한편 KICOX 글로벌 선도기업은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4년부터 KICOX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진행되어 오는 2020년까지 총 3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062)973-0740